쓰레기 가득했던 7174㎡ 공터…주민 공동체 꽃 피웠다

숲 속의 전남 〈7〉

해남군 부곡마을 철쭉공원 (해남군새마을회)

재선충 덮친 소나무 숲 재정비
2500㎡ 철쭉 1만5500여주 심어

하늘에서 바라본 부곡철쭉공원. 부옥정과 연못, 철쭉과 재선충을 견뎌낸 소나무 몇그루가 보인다. 내년까지 마을공동소유 토지 전체에 철쭉을 심을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살다가 지난 2002년 귀촌한 양병곤(52) 이장은 부곡마을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었다. 전 이장인 문형숙(여·49)씨와 의기투합을 한 양 이장은 마을공동명의의 토지를 철쭉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제안했다.

무려 7,174㎡에 달하는 이 공터는 쓰레기, 잡초, 잡목 등으로 가득했다. 소나무 숲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 재선충이 덮쳐 소나무들이 고사하면서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새벽부터 40여명의 주민들이 나와 하나씩 치우다보니 25t 트럭 120대분을 버렸다. 깨끗한 땅에 흙을 부어 분지처럼 만든 뒤 철쭉을 심었다. 올해는 일단 2500㎡에 1만5500여주를 심었다. 주민들이 5000여주의 철쭉을 구매해 먼저 심을 만큼 의지가 강했다.

아직 절반 정도가 꾸며진 부곡철쭉공원에 정자가 하나 있다. 이름은 부옥정(富玉亭). 그만큼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이라는 의미다.

공원이 조성된 뒤 종종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하고 간신을 함께 즐기는 등 주민공동체의 유대도 강해졌다. 부옥정 앞에는 연꽃이 피어나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 면적이 조금 축소됐지만, 내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치면 연못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볼 생각이다. 철쭉 중간중간에 주민들은 백일홍과 동백을 심어 조경에도 신경을 썼다. 찾아오는 사람이 기분 좋게 즐기고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도 담았다.

문형숙 전 이장은 "주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원을 꾸몄다"며 "어르신들이 마을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도와주셔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철쭉공원 정보
-주소 : 해남군 부곡리 127-6 외 2필지
-면적 : 7174㎡
-내역 : 철쭉 1만주, 벤치 등
-장소 : 부곡마을 공동소유토지
-목적 : 주민 및 외지인 휴식공간 제공, 경관 조성

양병곤(왼쪽) 이장과 문형숙 전 이장.

양병곤 이장
"마을이 살기 좋아야 젊은이들 돌아오죠"

"마을에서 제일 '영계'다보니 당연히 어려운 일은 도맡아서 해야죠. 어르신들이 무조건 밀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병곤(52) 이장은 논농사에, 배추·마늘·고추 등 밭농사까지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거기에 마을 공동체의 '머슴'도 그의 일이다. 도착했다는 연락을 하자 하우스에 있다가 부랴부랴 부옥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이장은 "마을에 딱히 자랑할만한 거리가 없었다"며 "유치원생들이 놀러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신념은 확실하다. 살기 좋아야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올 것이고, 지금 그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뒤 과거 100가구를 회복하는 것이 양 이장의 목표다. 현재는 30여 가구.

"철쭉공원을 아들 결혼식장으로 쓰고 싶어요. 먼훗날 부곡마을의 미래유산으로 대대손손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숲에서 미래세대와 소통

목포시 양을산 생태환경숲 (자연환경연구소)

목포는 숲이 부족한 도시다. 49.94㎢의 면적에 인구는 24만여명으로,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건물, 도로 등 인공시설물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더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도시민들이 짬을 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내 초록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던 자연환경연구소 배서영(여·42·**사진**) 소장이 양을산터널에 주목했다. 높이 156.4m의 양을산은 유달산과 함께 목포에 몇 안 되는 산으로, 산림목장이 있을만큼 초록이 우거진 곳이다. 신·구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터널공사에 착공, 6년만에 준공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훼손된 공간에 나무를 심어 다시 초록을 되살리고자 했다.

터널 위 유휴부지를 둘러본 배 소장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나무를 심지 않으면 분명히 미래세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 공간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회원들과 그 자녀 130여 명이 지난 4월 방치돼 있던 공터에 살구나무, 왕벚나무, 대추, 매실 등 나무와 철쭉을 심었다. 과일나무를 심은 것은 어린이들에게 수확의 기쁨도 주기 위한 배 소장의 배려였다.

어린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 될 양을산터널 위 생태숲.

그녀는 "언제든지 아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무엇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남도의 '숲 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 성과에 매진하는 데 반해 전남도는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할 일을 묵묵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연구소는 양을산터널 생태환경숲 조성을 계기로 분기별로 거름주기, 청소 등을 통해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학생, 일반인, 장애인 등의 자연생태환경 교육 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생태환경숲 정보
-주소 : 목포시 용해동 산34-20외
-면적 : 2만5000㎡
-내역 : 살구나무 등 100그루, 관목 및 초화류 400본, 벤치 등
-장소 : 양을산터널 위 유휴공간
-목적 : 생태환경교육, 경관 조성 등

'부자 섬' 시산도, 꽃 섬으로 다시 핀다

고흥 시산도 신기한 꽃섬 만들기 (시산마을회)

시산도(詩山島)는 고흥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거금도에서 남동쪽으로 4㎞ 지점에 있다. 교통여건이 너무도 열악해 하루에 단 한 번 여객선이 다닌다. 그것도 오전과 오후에 드나들기 때문에 쉽게 오갈 수 없었다. 승용차는 언감생심, 선박을 임차해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

명칭으로만 보면 '인문학적 내음'이 물씬 풍기지만 선착장에 도착해보니 거중기와 트럭, 그물더미 등이 가득하다. 여느 남도의 섬과는 달리 30~40대가 눈에 보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 켠에서 작업 중인 이색적인 풍경이다.

시산도는 '김'의 섬이었다. 면적 3.65㎢, 해안선 길이는 24㎞의 자그만 섬에서 고흥 김의 3분의1이 생산되고 있다. 125세대 250여명이 매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난해 2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세대 당 2억~3억 원을 버니 젊은이들도 되돌아오고 있다. 55세까지 가입하는 청년회 회원이 26명, 60세 미만을 포함하면 45명에 이른다. 현재 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만 20여 명이다.

올 들어 이 '부자 섬'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숙원이었던 섬전용 철선을 마련한 것이다. 여객선이 아닌 철부선이어서 섬사람들도 자신들의 차를 타고 뭍과 오갈 수 있게 됐다. 게다가 하루 3차례나 여객선, 철부선이 오가면서 교통 편의도 크게 나아졌다.

섬사람들은 이제 '아름다움 섬'이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한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시산도의 아름다운 풍경, 동해일출, 서해낙조, 대나무 숲의 밤비 등 '시산 8경'을 외지인들도 즐기길 바라면서, 시산도의 입장에서는 '김'에만 의존하기보다 관광을 미래 소득원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의미도 있다.

시산도해수욕장.

해수욕장이나 봉화산 등 자연자원들도 찾는 외지인이 거의 없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시산도 주민들은 자원 주변을 숲과 꽃으로 장식하고 싶었다. 올 상반기 시산도해수욕장 뒤로 펼쳐진 군유지에 해당화, 장미, 산수화 등 꽃나무와 느티나무를 심었다가 여름 가뭄 피해가 심각하자 지난 10월 중순 주민들이 나와 다시 가꿨다.

주영식(65)씨는 "아름다운 시산도를 외지인들도 찾아 즐기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김'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말했다.

■시산도 숲 정보
-주소 :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742-3 일원
-면적 : 2000㎡
-내역 : 해당화 1704본, 장미 336본, 산수화 1704본, 느티나무 6그루, 벤치 등
-장소 : 시산도 해수욕장 배후지
-목적 : 경관 조성, 관광자원화 등

이생우 시산리 이장
"접근성 높아진 시산도에 낚시·관광하러 오세요"

"언제나 찾고 싶은 명품 꽃섬으로 꾸미겠습니다."

이생우 이장은 선착장에 있는 김 양식 장비를 작은 선박으로 옮겨 담고 있었다. 계속 일하던 그는 '시산페리호'가 입항하자 손을 멈추고 작은 포크레인에서 내렸다.

시산도 유일 식당에 사정으로 쉬자 시산페리호가 거금도 오천항에서 점심도시락을 배달한 것이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오전과 오후 여객선이 한 차례 오가는 시산도에 전용 '시산페리호'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삶은 좀 더 윤택해졌다.

"소득이 높으면 뭐합니까? 오갈 수가 없는데요. 외지인들도 없고, 주민들도 갇혀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산페리호 덕에 좀 더 편하게 뭍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는 고흥군과 전남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천항에 선착장을 만들고, 선박을 구입해줬기 때문이다. 선박 운영은 시산리에서 맡고 있다. 그 역시 4년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며 지냈다.

"고향이 그리웠고요. 제 구상을 고향에서 한 번 실행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이장은 어촌계장을 거쳐 올해 이장을 맡은 뒤 시산도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냈다.

"경관도 좋고 낚시도 잘 되는 시산도를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숲 속의 전남 주민 숲 공모에 참여했어요. 앞으로도 시산도를 잘 가꿔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